

광화문 세월호 천막, 다음주 자진철거



서울 광화문 세월호 추모 공간의 모습.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새롭게 조성할 세월호 참사 추모 '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세월호 유족은 다음주 중으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을 자진 철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은 영시민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광화문광장에 조성할 '세월호 추모

기억공간' 설치안을 승인했다. 시는 현재 조성된 세월호 천막의 절반 규모로 추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다음달 16일 전에 시민에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주 중 세월호 천막이 철거되는 대로 종로구청에 가설물 설치 인가를 신청하고 이달 중순경

기억공간, 현재 절반 규모 조성
세월호 5주기 맞아 내달 공개
이달 15일 전후 기억공간 공사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기억공간 조성을 위해 전시장품 설치, 공간연출, 디자인 등에 5000만원, 내외부 마감, 전기배선공사 등에 1억5000만 원 등 총 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추모공간에 대한) 설계가 마무리 단계"라며 "3월 중순 전후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될 기억공간의 규모는 설계가 완료돼야 정확하게 나올 것"이라며 "현재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천막이 좌우로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천막이 설치돼 있는데 절반인 7개 천막의 크기에 목조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롭게 조성될 기억공간은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기억공간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전시물이 들어선다. 또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 등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콘텐츠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억공간 '상설화' 여부를 놓고 세월호 유족과 서울시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2020년 1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기억공간'이 철거돼야 하는 '임시시설'이라는 입장인 반면, 세월호 유족은 '상설화'를 요구하며 시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 본격 나선다

7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관련 기술 개발에 본격 나선다.

7일 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의 미세먼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서울형 미세먼지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내에 연구팀(대기질 모델링팀)을 구축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연구실을 설치해 서울형 미세먼지 관련 연구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터널 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서울시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수행하고 있는 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필터 시험장치 설계와 질소산화물 및 산화탄소 제거기술을 개발했다.

시는 아울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 내 공기정화필터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버스차로 주변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버스부착형 미세먼지 집진(集塵)장치에 대한 성능검증 실험도 계획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오염발생원 근처에 위치한 도로시설물을 활용해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보도블록과 도로 등에 광촉매 기술을 실제 적용하고 관련 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실험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이 완료되면 실제로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 대기오염저감망 자료보완과 미세먼지 유입경로 분석기반 마련 위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황보영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대중교통과 건물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최선을 다해 가능성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니시스

니시스

서울시, '돌봄사각지대' 고령장애인 월50시간 돌봄지원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해 서울시가 돌봄 지원을 추가 제공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 서비스도 마련된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2019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을 위해 월 50시간 돌봄활동서비스를 제공한다.

안고 있음에도 비장애 노인과 같은 수준의 활동지원만 받게 된다. 월 최소 72시간에서 최대 108시간까지로 돌봄지원 시간이 대폭 감소하면서 복지서비스 수준이 크게 떨어진다. 이 같은 돌봄 공백을 메우겠다며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에 따른 월 72~108시

체유변경, 스트레칭, 근육이완 운동, 체온조절 ▲체온확인,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출 확인, 낙상위험 확인 등을 제공한다.

이로써 고령 중증장애인 수혜인원은 올해 170명으로 시작해 내년 210명, 2021년 250명으로 늘어난다. 이 사업을 위한 연간 소요예산은 10억9700만원 수준이다.

아울러 만 18~65세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시는 만 18세 이상이 돼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기본 88시간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를 연간 280명에게 제공한다. 낮 동안 지역사회에서 배우고 즐기며,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돌봄비 1명당 발달장애인 2~4명이 편성된다. 돌봄비는 교육과 훈련, 여가, 취미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기본 88시간 서비스가 연간 발달장애인 280명에게 제공된다.

지원시간은 기본형(월 88시간/일 4시간), 단축형(월 44시간/일 2시간), 확장형(월 120시간/일 5시간) 등 3가지 유형이다. 이 사업의 연간 소요예산은 42억3800만원이다.

이 밖에 시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현 45개소) 4곳 신규 개소 ▲탈시설 중증장애인 퇴소후 지원 시간 확대 ▲중증장애인 응급알림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그동안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지속 추진해왔음에도 사각지대가 잔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욕구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주거·경제·문화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립욕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 고시원 최다

최근 3년간 서울지역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았던 곳은 고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는 2016년 276건, 2017년 200건, 지난해 224건 등 매년 200여건 이상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인명피해 사상자는 총 46명(사망 9명·부상 3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16년 부상 10명, 2017년사망 2명·부상 5명, 지난해 사망 7명·부상 22명의 인명피해가 각각 발생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인명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난해 11월9일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로 총 18명(사망 7명·부상 1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의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업종별 인명피해는 고시원이 가장 많은 26명(사망 8명·부상 17명)이 발생했다. 이어 음식점(부상 11명), 노래방(사망 1명·부상 2명) 등의 순이었다.

니시스

니시스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확대 등 자립지원계획 수립
고령장애인 돌봄활동 서비스 50시간 추가 제공도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월 88시간 지원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중증장애인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월 최소 47시간에서 최대 74시간까지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된다. 지원방식이 바뀌면 중증장애를

간 돌봄 외에 월 50시간의 추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장애인활동지원 수행기관이 순회돌봄비를 고령 중증장애인 가정으로 파견해 하루 3시간씩 월 평균 16일 돌본다.

순회돌봄비는 ▲관장, 배뇨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도움 ▲

니시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

